전호근 <맹자, 천하를 다스리는 자를 다스린다>

10강 대장부, 천하의 한 가운데에 서다

◆ 1교시 호연지기, 마땅한 도리를 모아서 생긴다

▲ 용기를 기르는 방법

이번 시간 주제는 대장부, 천하의 한가운데 서다 맹자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레를 타고 천하를 돌아다닌 것이 맹자의 삶이었는데요, 수레를 타고 천하를 돌아다닌 것이 결국 맹자가 가진 당시 현실인식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맹자는 주로 양나라, 제나라 제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왕도정치를 이야기하고 혁명론을 이야기했는데요. 당시로서는 어떤 지식인도 한 나라의 제후들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배경에 바로 맹자의 대장부론이 있고, 대장부가 되기 위한 조건 속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不動心, 커다란 욕심을 앞에 두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 다른 사람의 주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 지언입니다. 부동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때 動이라는 건 동요의 뜻이여요,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다. 커다란 욕심을 앞에 두고도, 욕심이 나는 물건을 앞에 두고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부동심, 그리고 知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지, 알아듣는 겁니다. 단순히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어디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지나친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두려움에 쌓여 있기 때문에 변명하는 말을 하는지, 그런 상대의 말을 상대의 처지에 비추어서 이해하는 그런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지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제 유명한 浩然之氣,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맹자는 대장부라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오해가 되는 건 浩然之氣라고 해서 氣라고 붙어있기 때문에 그 기를 잘 기르는 방법을 맹자가 주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의 내용을 이른바 도가의 연단이라든지 수련이라든지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맹자는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 대자연의 호연지기를 호흡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흔히 맹자의 호연지기가 알려져 있는데 미리 역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내용과 전혀 다른 의미가 맹자의 호연지기론이고 대장부론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부동심부터 시작해서 맹자가 호연지기를 어떻게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는지 그리고 또 크게 보면요 양용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용기를 기를 수 있는가 養勇, 勇氣를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맹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텍스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맹자의 公孫丑章句上에 보면요, 부동심에 관한 내용 그리고 호연지기에 관한 내용 그리고 호연지기를 잘못 기르는 방법의 예로 알묘조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 1페이지 젤 위에 보면 부동심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목이 40에 부동심을 이루다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가 내용의 원문이 나오는데 원문은 뭐 하나하나 읽어보지는 않고 제가 말씀으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www.artnstudy.com

맹자의 제자 공손추가 맹자에게 이렇게 물어요, 맹자가 제나라의 경상(卿相)이 되면, 높은 벼슬을 얻어서 자신의 정치를 베풀 수 있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서 패도나 왕도를 이룰 수도 있다. 작게 이루면 패도가 되고 크게 이루면 왕도가 될 수 있는데 그 정도라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動心 否乎, 이렇게 물어요 적어도 패도를 이룰 수 있고 또 크게 이루면 왕도 정치를 이룰 수 있다 그렇다면 한번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니까 맹자가 그 정도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패도나 왕도가 하찮아서가 아니라 패도나 왕도를 이룬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제후들을 찾아가진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내용 속에 보면 나는 사십에 부동심이라는 四十 不動心, 나이 마흔에 부동심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다, 논어에는 보면 그렇게 돼있죠. 공자가 吾十有五而志于學, 나는 열다섯살에 배움에 뜻을 두었고, 지우학이라 하죠. 또 三十而 立삼십이립하고, 나이 삼십에 나 자신을 세웠고. 세웠다고 하는 것은 예를 익혀서 자신의 동작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고. 四十而 不惑, 불혹 나이 마흔에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혹은 미혹의 뜻입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에 의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 확신을 가지는 그런 의미로 불혹을 이야기 했는데 맹자의 부동심과 아주 비슷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제후의 밑에 가서 벼슬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대로 나의 삶을 지키는 것이 옳은지를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공자가 이야기한 四十不惑과 맹자가 이야기한 四十不動心은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맹자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약간 새로운 점이 있습니다. 고 내용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죠. 두 번째 문단은 보면 북궁류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세 번째 문단에 보면 맹사라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고 내용은 제가 번역을 해 뒀으니까 번역물을 읽으면서 살펴보죠

북궁유가 용기를 기르는 방법은 이렇다 이게 養勇. 용기를 기르는 방법을 이야기 합니다. 근데 北宮黝라는 사람은 성이 북궁이여요, 북궁에 산다고 해서요. 그 다음에 黝는 이름입니다. 북궁유라는 사람이 용기를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칼이 피부를 찔러도 동요하지 않고, 상대의 칼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도 동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칼이 눈으로 다가와도 피하지 않는데, 칼이 눈동자를 찌를려고 눈으로 날아오던지 그래도 피하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면 마치 사람 많은 곳에서 매질을 당한 것으로 여기며 큰 모욕을 당한 것과 같이 여긴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하찮은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 만승 제후국의 군주에게도, 萬乘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레 만대를 출동시킬 수 있는 원래는 천자국이었습니다만, 맹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천자는 없었기 때문에요 제후국이죠. 결국 이 큰 나라 제후국의 군주에게도 모욕을 당하지 않아서 만승제후국의 군주를 칼로 찌르는 것을 하찮은 사람을 찌르는 것과 같이 여겨서 제후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자신을 헐뜯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보복한다. 이게 北宮黝라는 사람은 자객입니다. 자객이 용기를 기르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결국 상대보다 자신이 더 강하고 상대보다 자신이 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 의해서 용기를 기르는 거죠 외부의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의 강함에 의지하는 그런 종류의 자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궁유라는 사람은요 그리고 그다음엔 맹사라는 사람이

www.artnstudy.com

있습니다. 원문에는 孟施舍라고 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施자는 사실은 성과 이름 사이에 들어가는 어조사로 쓰이기 때문에 맹시사가 아니라 사실은 맹사죠 이 맹사라는 사람이 용기를 기르는 방법은 앞에 말한 자객 북궁유가 말한 방법과는 자못 다른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맹사가 용기를 기르는 방법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1페이지 하단에 있는 문단입니다. 이기지 못하는 것을 이기는 것과 똑같이 생각한다. 적을 헤아려 본 뒤에 나아가고 이긴다는 확신이 든 뒤에 싸운다면 그 것은 삼군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내가 꼭 어찌 꼭 이기겠는가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다. 북궁유가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약하다 혹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물리력으로 더 강하다는데에 의존해서 싸우는 사람인데 비해서 맹사는 자기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상대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북궁유라는 사람의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북궁유보다 더 강한 자를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한 명 보내서 안될 것 같으면 열 명 보내면 되고 백 명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북궁유를 굴복시킬 수 있을 터인데 맹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육체적으로 맹사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신적으로 맹사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 사실은 용기를 기르는 방법인데요. 결국 이 논어에 나오는 지사론과 유사해요. 논어에 보면 三軍可奪帥也, 匹夫 不可奪志也, 三軍 속에서 可奪帥, 그 호위를 받고 있는 장수는 빼앗는 것이 가능하다 잡아올 수 있지만 필부는 그 뜻을 不可奪, 빼앗을 수 없다 삼군의 장수는 이길 수 있지만 필부의 뜻은 불복시킬 수 없다. 논어에 나오는 지사정신 물리적으로는 불복시킬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이 지사를 꺾을 수 없다는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엔 그 공자가 이야기한 지사정신과 맹자가 이야기한 부동심을 기르는 방법 중에 하나인 양용론, 용기를 기르는 법 두 가지가 소개됐는데 하나는 북궁유의 방법이고 하나는 맹사의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맹자가 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북궁유처럼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강하다는데 의존하는 자객보다 맹사처럼 용사 역전의 용사, 용사는 비록 자신의 물리적 힘이 다른 사람보다 약하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굴하지 않는 그런 태도, 이것을 높이 평가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걸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바로 공자의 지사정신과 통하는 점인데 그와 비슷한 내용이 계속 이어져있는데 그 중에 일부에 자하와 맹자를 비교한 대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살짝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호연지기론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넘어가 보죠.

▲ 선생님은 어떤 점이 뛰어나신가요

2페이지 보시면 호연지기론이 나옵니다. 2페이지 상단을 한 번 읽어보죠. 공손추가 물었다. 맹자의 제자 공손추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점이 뛰어 나신지요? 맹자가 앞에 이야기한 여러 가지 긴 문장이 있어서 제가 살짝 넘어갔는데 고자 같은 사람도 부동심을 이뤘습니다. 고자는 제 다음시간에 다룰 성선설을 반대한 당시 지식인 중 한사람입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 했는데, 고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이외의 모든 주장을 펼치는 학자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일단 고자가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성선설을 반대하는 여러 견해를 대표하는 가공의 인물일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고자도 맹자와 마찬가지로 부동심을 이룬 것으로 이야기 합니다. 고자도 부동심을 이

www.artnstudy.com

뤄요. 고자도 부동심을 이뤘는데 맹자도 똑같이 부동심을 이룬다. 그렇다면 고자의 부동심과 비교할 때 맹자의 부동심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가, 어떤 점에서 더 우월한가를 이렇게 물은 겁니다. 공손추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자의 부동심은 외부에 의존하는 방식입니다. 맹자의 부동심은 외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의리, 올바른 의지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자의 부동심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부동심을 이루었다고 해서 똑같다고 할 순 없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큰 목적이 있으면요 다른 작은 목적들은 목적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비유가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도덕성의 수준과 장관쯤 하는 사람의 수준과 또는 이장정도 할 수있는 도덕성의 수준이 사실 다르죠. 그런데 뭐 그런게 그게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반대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현실 속에서는 근데 어쨌든 어떤 공직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수준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큰 목적이 있으면 다른 작은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 큰 목적 때문에 참을 순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작은 목적을 이루기 싫어서가 아니라 큰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작은 목적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작은 것들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작은 것을 참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결국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물욕을 차지하기 위해서 작은 물욕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맹자같은 경우는 커다란 목적이 자신의 도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의리를 지키는 것이다. 내면에 있는 겁니다. 스스로 내면에 있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다른 이익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맹자니까 고자와 맹자가 부동심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같지만 안팎을 달리한다는 점에서는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을 살펴보죠.

선생님께서는 어떤 점이 뛰어 나신지요. 이러니까 맹자가 나는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고, 이게 지언(知言)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善養吾浩然之氣하는 대목이 나오는 데요, 이 대목을 집중적으로 보기로 합시다. 맹자의 대장부론을 뒷받침하는 것이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쉽게 이야기 하면 양용론인데요, 용기를 기르는 방법이 무엇인가, 양용론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맹자가 주장하는 것은 知言. 맹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知言과 善養吾浩然之氣라고 해서, '나의 호연지기' 이렇게 되어있지만 '나'는 굳이 없어도 되겠죠? 없으면 안 되겠네요. 호연지기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나의 호연지기를 선양, 잘 기르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인제 필요한 겁니다. 지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일단 호연지기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호연지기라 하는지요? 공손추가 그렇게 물었지요. 그러니까 맹자가 "말하기 어렵다" 그러고는 이제 말을 해 줍니다. 요 내용을 제가 이제 원문을 적어가면서 살펴보죠

호연지기가 뭐냐, 그 호연지기의 爲氣, 호연지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이제 맹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至大至剛,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다. 호연지기는 상대할 수 있는 다른 기가 없을 정도로 지극히 광대하고 또 지극히 굳세다. 그리고 무얼로 기르냐면 以直養, 뭐 다른 견해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 以直養입니다. 정직으로 기르는 겁니다. 호

www.artnstudy.com

연지기를 기르는 방법은 다른 게 없고 정직으로 養 - 호연지기를 길러서, 無害 - 해침이 없어야 한다. 호연지기는 정직으로 기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면 해치게 되는 거죠. 성격이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도가의 연단이나 양생과는 상당히 성격이 다릅니다. 정직으로만 기를 수 있는 것이 호연지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르게 되면 이 호연지기가 則塞于天地之間이라고 해서, 내가 호연지기를 잘 기르게 되면 나의 호연지기가 천지사이에 가득 차게 돼있다. 천지에 있는 호연지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호연지기를 천지 사이에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요, 其爲氣也 配義與道하니, 기의 성질은 다음과 같다. 配義與道, 의와 도를 배 짝으로 삼는다. 곧 호연지기는 義나 道와 같습니다.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의와 짝이 되는 존재가 호연지기, 그러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의와 도가 없으면 굶주리게 된다. 의와 도가 없으면 호연지기가 천지 사이에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쪼그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是集義所生者라, 이 호연지기는 집의 의리를 모아서 소생, 생기는 것이다 의리를 모으는 행위가 이 호연지기를 생성시키는 것이다. 이 호연지기는 의리를 모아서 생기는 것이지 바깥에 있는 의를 취해 오는 게 아니다. 非義襲而取之也니, 의리가 바깥에 있다가 나에게 올 때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있는 의리, 마땅한 도리를 모아서 생기는 것이다. 결국 義와 道라고 하는 마땅한 도리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고는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 2교시 호연지기는 올바른 행동을 하면 저절로 생긴다

▲ 조장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 있죠? 行 - 행동 했는데 어떤 일을 했는데, 不慊於心 - 마음속에 不慊할 때 慊은 '흡족하다'는 뜻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흡족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餒, 굶주린다. 호연지기가 굶주린다고 했어요. 餒矣, 이렇게 되죠. 굶주린다는 뜻입니다. 호연지기는 마땅한 도리를 실천함으로써, 모이는 것이고, 마땅한 도리를 실천하지 못하면, 호연지기가 굶주리게 된다. 결국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도리에 맞지 못하면, 마음속에 흡족하지 못하게 되고, 흡족하지 못하게 되면 호연지기가 생길 수 없다. 호연지기는 도와 의라는 도덕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 생길 수 있고 굶주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해서요, 호연지기를 잘못 기른 방법 알묘조장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고거는 뭐 원문을 제가 쭉 써 놨습니다만, 원문의 내용이 비교적 쉬우니까요 원문을 읽으면서 한 번 보죠. 2페이지 2번째 문단에 보면 알묘조장이라고 제가 써놨죠? 그리고 그 속에 내용이 있습니다. 必有事焉而勿正하여, 반드시 有事 - 일이 있으면, 중요한 일이 있으면, 勿正 - 어떤 일을 꼭 해야한다 이런 뜻이여요. 그러니까 기필하지 말아서 正은 어떤 일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하는 건데, 반드시 해야 할 어떤 일이라고 하는게 논어나 유가학자들 대부분이

www.artnstudy.com

반드시 해야 할 어떤 일은 부정합니다. 심지어 왕부지 같은 학자는 군자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없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있다.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있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선은 어떤 일을 하는 것 보다 하지 말아야 할 무엇이 더 중요하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논어에도 비슷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절대 하지 않는 것도 없고, 절대 꼭 해야 할 것도 없다. 뭘 따르나? 의를 따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의리라고 하는 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隨時處義니까 공자의 주요 사상이라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 處義, 마땅한 도리의 處, 머무는 거, 그게 공자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니까 마땅한 도리를 따르는 것은 확실한데 어떤 것이 마땅한 도리이냐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뭐 어쨌든, 어떤 일을 꼭 해야겠다고 기필하는 게 없어야 되는 거죠. 勿正입니다. 期必을 하지 않는 반면에 잊어버려서도 안됩니다. 호연지기를 길러야겠다고 작심하고 기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호연지기를 잊어버려서도 안된다는 겁니다. 心不勿, 호연지기를 마음속에서 잊지 말아야 된다.

맹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호연지기를 어떤 방식으로 길러야 되겠다. 이렇게 期必 해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연지기 자체를 반기해버리거나 잊어버려도 안 된다. 그리고 또 조장해서도 안 된다. 호연지기를 억지로 기르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것입니다. 조장 그러니까 호연지기라는 것은 올바른 행동을 하면 저절로 생기기 때문에 조장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다. 勿助長이라고 합니다. 호연지기가 조장 자라는 것을 도와서 돕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물자니까, 호연지기를 키워야지 하는 것은 엉뚱한 행동을 해서 그걸 키우려고 해서도 안 된다. 하는 행동이 도리에 맞으면 호연지기는 의를 모아서 생기는 것이니까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호연지기를 키워야지 하고 억지로 뭐 등산도 하고 이런다고 호연지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상해진다 이거에요. 그게 이제 助長이라는 겁니다. 조장이라는 말은 도와준다는 뜻인데 뭘 도와주냐 하면, 長 - 자라도록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장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 안 쓰이고 있죠. 그건 제대로 쓰이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뭘 조장한다 이럴 때는 사행심을 조장한다, 이런다든지 북패를 조장한다는지, 안 좋은 걸 도와 줄때 조장이라는 말을 쓰죠. 좋은걸 도와 줄때는 조장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고전에서는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게 언어생활 속에 들어와서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고전에서는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게 또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표범한다 이러면, 표범처럼 변한다는 뜻인데, 그건 본래 군자의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군자는 변할 때가 되면 표범처럼 분명하게 변한다, 자신을 촉진시킨다. 이런 뜻인데 요즘 표범한다는 뜻은 뭐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안 좋은 일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범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본래는 좋은 말이었어요. 그리고 본래 군자가 표범이라는 것은 좋은 말이었고, 또 호시탐탐이라는 말도 본래 좋은 말로 쓰였습니다. 요즘은 뭐 잡아 먹으려고 노린다 이 정도의 나쁜 의미로 쓰이는데 본래는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게 나쁜 의미로 쓰이게 됐고요, 뭐 조장은 여전히 나쁜 의미로 쓰이고 있으니까 본래 고전에 나오는 것이 딱 맞다고 봐야죠.

그 내용은 뭐 쉬우니까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조장하지도 말아서 無若宋人然이어다 이렇게 읽죠. 송나라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 될것이다. 송나라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宋人이 有閔其苗之不長而揠之者러니. 송나라 사람 중에 이런 자가 있었다. 閔其苗之不長은 곡식싹이

www.artnstudy.com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곡식싹이 잘 자라지 않는 것을 걱정해서, 揠之者 - 뽑아 버린 자가 있다. 실제로 확 뽑아버린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땡겨주는거죠. 그러니까 芒芒然歸하여, 멍청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와서 謂其人曰 - 집안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今日에 病矣로라, 오늘 병이 날 지리라. 오늘 정말 피곤하다. 予助苗長矣로라 하여늘 - 내가 곡식이 자라도록 좀 도와줬다. 곡식이 자라는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거의 눈에 보이는 속도로 자라는 곡식이 있던가요? 雨後竹筍이라고 해서 죽순 자라는 것이 정말 눈에 보인다 그러는데 제가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보일정도로 자란다고 그러는데 사실 곡식 싹이 자라는 걸 볼 순 없죠. 분명히 자라고 있지만 보이진 않죠. 천천히 자라니까요. 그게 답답한 나머지 손으로 살짝 뽑은 거죠. 그게 꼭 농사 안 지어본 사람들이 그 짓 잘하죠. 저도 농사, 농사가 아니라 텃밭을 조금 일궜는데 씨감자를 파묻었죠. 이놈이 안나오는 거에요. 안나오니까 답답해가지고 파서보니까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덮어줬는데, 요렇게 파보니까 싹이 막 나오는 무렵이었다고요, 제가 사진도 찍어놓고 했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나오니까 답답해서 파 본거죠. 저는 조장은 안했습니다. 당기고 이러는게 맹자가 말했던 조장인 거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지 못하고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당겨올린 거죠 당겨올리니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 죽죠. 그래서 其子趨而往視之하니 苗則槁矣러라, 그 아들이 쫓아가서 곡식의 싹을 보았더니 이미 말라 버렸다. 당연히 말라 버리겠죠.

그런데 天下之不助苗長者寡矣니, 천하에서 곡식 싹이 자라는 것을 보고 조장하지 않는 사람이 적다. 以爲無益而, 무익하다고 여겨서 호연지기라고 아는 게 무익하다. 그런 것 길러 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요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도리에 마땅한 행동을 하는 게 그렇게 유리하지 못하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것도 나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고 여겨서 도리에 맞게 행동하고 하는 게 대체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배려한다든지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면 자신의 이익이 어느 정도 희생이 되니까 아무 이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익이 이로울 것이 없다고 여겨서, 舍之者 - 버린 자는, 不耘苗者也요 - 곡식을 가꾸지 않는 자이고 助之長者 - 또 도와서 자라도록 해주는 자는, 揠苗者也니 - 곡식 싹을 막 뽑아 올리는 자이니, 非徒無益이라 - 徒는 뭐 한갓 이런 뜻입니다. 한갓 무익할 뿐만이 아니라, 而又害之니라 - 도리어 해지 그 곡식 싹 자체를 해치기도 한다

호연지기는 마땅한 도리를 실천하면 저절로 마음속에서 형성되는 것이지 그걸 억지로 기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장하다 보면 오히려 호연지기가 망실되는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맹자가 이야기 하는데요 이 곡식 싹을 가꾼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공자가 이야기한 '인'이나 맹자가 이야기한 '인'도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이라고 하는 게 子와 똑같이 쓰였어요. 씨앗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씨앗 그래서 인을 씨앗으로 하는 게, 도인 그러면 복숭아씨구요, 행인 그러면 살구씨죠, 어질 인자를 썼어요. 씨앗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사람에게 있는 의리의 씨앗, 사랑의 씨앗 그런 것이 이제 '인'입니다. 이른바 이제 이런 식의 인이라고 하는 걸 씨앗이고 자기 몸속에 있는 씨앗을 기른다 이렇게 되면 결국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씨앗을 키우는 터전이 되는 거고요. 心地, 志가 아니라 心과 地, 심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인이라는 씨앗을 뿌려서 그것을 키우는 거죠. 인이라는 씨앗을 땅에 뿌려서 마음이라는 땅에 뿌려서 경작하는 겁니다. 인사동

www.artnstudy.com

가면 경인미술관이라고 있죠 그것도 이제 이런데서 나오는데 맹자가 이야기한 揠苗助長, 곡식을 기르는 것처럼 곡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선이라는 뜻으로 그냥 쓰입니다. 不穀, 훌륭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써서 제후들의 호칭입니다. 과임이라는 뜻과 같아요. 곡은 곡식은 땅에 뿌려서 키우듯 호연지기도 마음의 터전에 뿌려서 키우는 것인데 그게 올바른 행동이라고 하는 '의와 도'라는 것을 먹고 자라는, 마치 곡식의 영양분과 또 수분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의와 도'는 영양분이나 수분이 이 곡식을 자라도록 도와주는 자양분인 것처럼 의와 도는 호연지기가 자라도록 도와주는 자양분이고 수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없으면 호연지기는 말라 죽어 버리는 겁니다. 의와 도가 없으면 호연지기는 굶주린다 썩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의와 도를 먹고 자라는 게 호연지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일부러 선행을 하는 것은 오히려 방해만 되겠죠. 이를테면 좀 다른 맥락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흥부가 제비 다리를 치료해줘서 박씨를 얻는 걸 보고 놀부가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는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게 굶주리게 된다. 마치 그 다리를 다리가 아니라 곡식을 뽑아 올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 이제 宋人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국시대 쯤이 되면 송나라 사람이 완전 동네북이 되요. 장자에도 송나라 사람 나오면 별로 안 좋은 의미로 나옵니다. 장자에 나오는 송나라 사람은 자기나라의 장보관이라고 굉장히 훌륭한 아름다운 관이 있어요. 관, 은나라 시대의 예관입니다. 그걸 장사 밑천으로 마련해서 송나라 사람 송이 원래 은나라가 멸망당하고 나서 송나라에 가서 은나라 유민들이 살게 합니다. 무왕이 은나라 풍속을 지키고 살게 했는데 그 은나라 풍속 중에 하나가 장보관을 쓰는 거여요. 그 장보관을 쓰고, 현단복 입고 뭐 이런 식으로 살게 되어 있는데 그 송나라 사람이 바로 그 이런 현단복이나 장보관처럼 훌륭한 옷감 또 옷을 만들어 가지고 월나라에 갑니다. 근데 월나라 사람들은 단발 문신이에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몸에 문신을 새겨 가지고 옷을 안 입고 살아요. 거기에 저걸 가지고 갔으니 발릴 리가 없는 거죠 그런 바보라는 식으로 송나라 사람이 나오고요. 또 한비자 같은데 보면, 한비자인가 회남자인가 헷갈리는데 한비자 인 것 같네요. 한비자에 보면 각주구검(刻舟求劍)이라고 나오죠. 배를 타고 가다가 칼을 물에 빠뜨렸어요. 칼을 물에 빠지니 그 사람이 배의 한 부분에다가 여기로 칼이 떨어졌다 하고 표시를 하죠. 표시를 하고 그게 이제 刻입니다 표시를 하고선 나중에 도착한 다음에 그 표시된 부분 밑에 들어가서 칼을 찾으니 그게 제대로 됩니까? 그것도 송나라 사람이거든요. 전국시대 되면 송나라 사람들이 바보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가 되고, 이른바 이제 송양진, 송나라 양왕의 부질없는 인도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맹자도 그런 식의 송나라사람 이야기를 하나 보태고 있습니다.

▲ 지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지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또 살펴 보도록 하죠. 지언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원문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何謂知言이니잇고, 선생님 무엇을 일러 지언이라 합니까? 남의 말을 알아 듣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曰, 맹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詖辭에 知其所蔽하며 詖辭는 치우친 말입니다. 어느 한쪽 편만을 드는 말이에요 시사토론 프로그램보면 뭐 자주 나오잖아요 한쪽 입장만 대변하는 말입니다. 그 토론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토론을 하면 서로 다른 그 입장을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조정

www.artnstudy.com

하고, 어떤 점에서 서로 양보를 하고 이렇게 타협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정말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부정이나 비리 이런게 있다면 몰라도 그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한쪽이 부정과 비리다, 그건 타협을 해선 안 되죠, 당연히. 그건 토론의 대상은 아니지요. 사실 정치적 견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절대선이고, 한쪽이 절대악이고 이런건 있을 수 없으니까 토론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중에서 하나가 이제 詖辭입니다. 치우친 말, 편파적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편파적인 말을 하느냐. 知其所蔽하며 그렇게 편파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그가 가린 바를 안다. 무슨 폐라고 하는 것은 가렸다고 하는 것인데 욕심에 가렸다는 뜻이에요 물욕에 가려있다 이거여요 이거는 蔽입니다. 그러니까 물욕이 마음을 가려버린 거에요. 욕심 때문에 그 어떤 지역에 특혜를 주고자 한다, 특혜를 주고자 하는데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거기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뻔한 거죠. 이제 속셈은 가린 겁니다. 왜 그렇게 치우친 말을 하느냐, 어떤 특정 지역에 무슨 뭐 공장을 세워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뭐를 풀어서 세워줘야 된다, 이러는데 다른 지역은 어쩔 겁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죠. 이러면 그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주장을 자꾸 하는 것은 뭔가 그 사람이 이익과 결부된 다른 것이 있는 거죠. 그걸 꿰뚫어 본다 이거여요.

그 다음에 淫辭에 知其所陷하며 - 넘치는 말을 하는 경우에, 知其所陷 - 그가 빠진 바를 알며 빠져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떤 일에 빠져 있거나 어떤 대상에 빠져 있으면 그게 그냥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진 않죠. 우리가 뭐 어떤 것 보다도 있을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게 정말 있는가. 그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이야기하는 가족의 가치가 있는데 그건 절대적인 것인가 가족을 넘어서 어떤 가치가 없겠습니까? 오로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리라, 이게 그렇게 뭐 훌륭한 가치인 것 같지 않은데요. 가족을 넘어선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럼, 국가를 위한 거는 최고의 가치인가, 국가가 전쟁이나 이런 걸 저지르고 침략전쟁이나 이런 걸 할 때 어떡할 겁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죠.

민족도 마찬가집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어떤 최대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거는 고민의 꺼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죠. 지나친 주장을 펼치는 경우에 무엇엔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최고의 가치다. 요즘 뭐 물신에 빠져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른바 카메라 같은 것, 제가 취미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카메라에 관심이 많은데요, 자기가 갖고 있는 카메라가 자기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기가 가진 카메라 기종을 비난하면 참지 못하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때 어떻게 보면 물신화 되어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다음은요. 邪辭에 知其所離하며, 사사는 부정한 말입니다. 도리에 위배된 말인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일 경우에 知其所, 도리에 위배되어 있는 것, 정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며, 그래서 부정한 말을 한다. 뭐 나만 그랬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遁辭에 知其所窮이니, 변명하는 말을 할 때에 그가 곤궁한바 몰려서 그런 말을 한다, 이거죠. 곤궁한 것을 알게 되니, 그렇게 알아야 할 것이니. 生於其心하여, 詖辭, 淫辭, 邪辭, 遁辭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서 害於其政, 그 정사를 해치며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그 마음속에서 생겨서 그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發於其政하여 - 그 정치로 발 드러나서, 害於其事하나니 - 그 이를 해치니, 聖人復起사도 必從吾言矣시리라, 성인이 다시 태어나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 말을 따를 것이라. 맹자는 뭐 스스로 자부하는게 대단해요. 성인이 다

www.artnstudy.com

시 나타나도 내 뜻을, 내 말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주장 합니다.

▲ 그렇다면 선생님은 성인이신지

이제 약간 오버한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러니까 제자가 다시 물어요. 그럼 선생님은 성인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리고 이제 쭉 이야기 하는데요 2페이지에 나온 내용이 그런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2페이지에 나온 내용은 그렇다면 선생님 옛날에 그 공자의 제자였던 재아(宰我), 자공(子貢) 같은 사람들은 말을 잘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지음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죠. 나를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선위설사(善爲說辭)라고 이제 원문에 나오는데요. 말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치우친 말이나 넘치는 말이나 지나친 말, 그러니까 부정한 말 또 도피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니까 결국 맹자가 얘기한 詖辭, 淫辭, 邪辭, 遁辭 같은 그런 말의 약점을 잘 알고 있으니까 말을 잘하는 게, 염유(冉牛), 민자(閔子), 자공(子貢) 이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덕행을 잘 말한 건 염유(冉牛), 민자(閔子), 안연(顔淵)으로 나와 있죠. 2페이지 하단에 보면 염우는 염백우입니다. 또 공자 제자 중에 요건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잠시 제가 염우, 민자, 안연은 공자가 스스로 덕행이 뛰어나다고 칭찬했던 그 제자인 그 중에 한명이 빠졌어요. 염중입니다. 안연, 민자, 염백우, 중궁이라고 논어에 나옵니다. 염중궁인데 여기에 중궁은 빠져있죠. 맹자에는 중궁의 제자가 순자입니다. 이른바 이제 맹자는 증자 자자 계열의 학자고, 순자는 자하 중궁 계열의 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맹자가 이야기하는 덕행 중에서는 이게 이제 공손추가 물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공손추도 맹자의 제자란 말이에요. 맹자의 제자 공손추가 거론하는 공자의 훌륭한 제자 중에 중궁이 빠져 있는 것은 계열이 다른 학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건 추정이긴 하지만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제자들은 다 덕행이 훌륭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공자께서는 이런 아까 이야기한 재아나 자궁같이, 논어에 보면 재아와 자궁은 언어에 뛰어났다고 나와요. 세련된 언어표현에 능했던 그런 제자들이라고 공자가 칭찬했는데 공자는 이거 다 겸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자신이 성인이라고 이야기 안했다. 그러면 선생님은 성인 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자가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깜짝 놀라면서, 惡 是何言也 -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 식으로 공자께서도 성인은 자처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성인을 자처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길하면서도 자기가 성인이 아니란 말은 끝까지 또 안합니다. 난 성인 아니야 그러진 않아요. 그런 점에서 맹자의 성격이 잘 드러나 보이는데요. 어쨌든 맹자가 성인이 그 공자와 같이 비교하는 건 부담된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완강하게 이야기 하니까 공손추가 다시 물어 봅니다 그러면은 공자제자 중에서 자하, 자유, 자장 이런 제자들은 성인의 일부분을 얻었고, 염우, 민자, 안연 덕행이 훌륭했던 이런 제자들은 성인의 전처를 갖추었지만 좀 미약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제자들 중에 누구와 견주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깐 맹자가 대꾸를 안 해요 그 얘긴 이제 고만하자는 식으로 이제 결국 맹자의 뜻은 뭐냐면 공자와 감히 견주지는 못하지만, 공자 제자들과 견주고 싶진 않다. 공자제자 중에 누가 편안 합니까? 감문소안(敢問所安)이라고 이렇게 공손추가 여쭈어 보니까 맹자가 姑舍是하라 - 그건 이제 놔두자, 맹자의 뜻은 어디까지나 공자를 본받는데 있고 그 아래의 다른 사람들과 견주는 것은 맹자의 뜻은 아닙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후대의 이른바 이제 주자학자들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후대의 유학자들은 맹자는 안연을 두고 아성이라 그

www.artnstudy.com

러고, 공자는 성인이고 그리고 아성은 성인에 버금간다 해서 아성을 쓰는데, 성인 바로 밑에는 안연이 있고 그리고 맹자는 아성지아다 - 아성 그 아래에 있다, 그리고 대현이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다가 주자가 이제 맹자는 성인이다, 한태주도 성인의 도를 알려면 맹자부터 이뤄야한다는 식으로, 어쨌든 주자부터 맹자는 성인인데 그 이전까지는 맹자가 아성지아 정도로 일컬어졌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학자요, 정이천이죠, 정이라고 하는 학자에게 맹자 제자가 맹자도 성인입니까 하고 물어요. 일단 성인이 아니라는 전제가 질문에 깔려 있는 거죠 맹자도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그러니깐 성인은 아니고 학이 이미 지극한 곳에, 배움이 지극한 곳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아성지하대현 이 정도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주자로 가면 성인으로 격상이 되고요. 그런 것들도 사실 이런 대화 속에서 맹자가 공자처럼 자신을 낮추지 않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춰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낮춰서 평가했다고 해서 낮게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요 공자보다는 낮게 평가를 한거죠. 근데 사실 바로 그게 맹자의 매력이죠. 자 일단 그 호연지기론은 이 정도로 정의를 하고요 이제 대장부론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인데 잠시 쉬었다가 대장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ww.artnstudy.com